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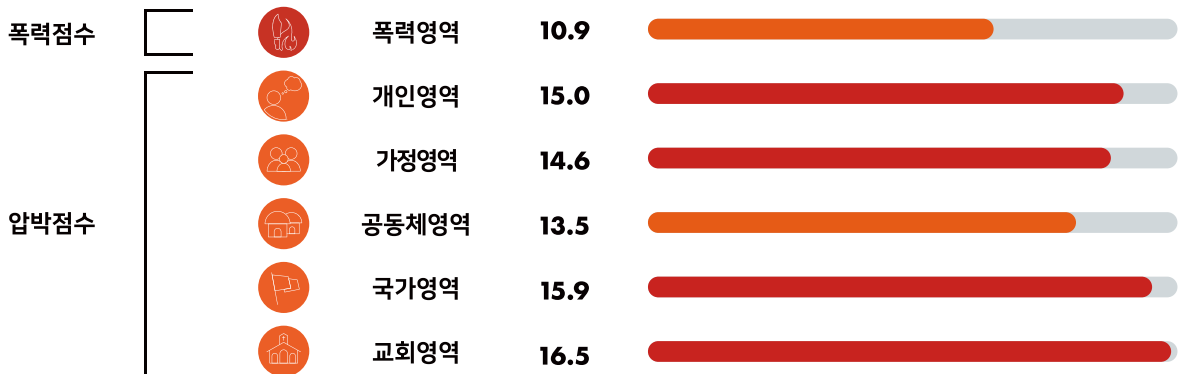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이란 (IRAN)

기독교 박해지수
9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특히 정부에 의해 종교적 자유 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도 멀하지만 여전히 탄압을 받는다. 정부는 이란의 기독교인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한다. 기독교 개종자 그룹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교파의 기독교인들은 "국가 안보 범죄"로 체포, 기소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역사적인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인 기독교 공동체는 국가에 의해 인정받지만 여전히 2등 시민으로 취급된다. 대부분의 직업, 특히 정부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슬림이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 기독교도들은 취업의 기회를 제한 받는다. 또한 이들은 합법적인 차별을 겪는다. 여기에는 기독교 활동이나 자료에 페르시아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란 (IRAN)

국가 정보

지도자 : 알리 호세이니-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인구 : 89,810,000 명
기독교인 수 : 800,000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신정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800,000	0.9
무슬림	88,288,763	98.3
바하이교	277,477	0.3
불가지론자	275,474	0.3

출처²

이란은 1979년 혁명으로 샤(Shah)가 축출되고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들이 통제권을 잡으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다. 이들은 서방의 영향을 기독교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했다. 오늘날 가장 고위급이자 영향력 있는 성직자는 원리주의자(보수주의자)인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Ayatollah Ali Khamenei)이다. 그는 모든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으며,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를 임명한다. 헌법수호위원회는 모든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직위의 모든 후보를 심사한다.

2022년 9월, 22세의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가 이란의 도덕 경찰에 의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받아 사망한 후 새로운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전 시위와 달리 이번에는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한 더 많은 사회 계층이 참여했다. 이란 정권은 수천 명의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가혹한 형

벌을 내렸으며, 그 중 수십 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2024년 동안 최소 345명이 처형되었으며, 쿠르드족(Kurds), 아와지 아랍족(Ahwazi Arabs), 발루치족(Baluch)등 소수 민족이 이러한 처형으로 불균형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많은 전통적 기독교인과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시위를 지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023년 10월 7일 시작)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공격이 증가했다. 주요 공격 중 하나는 2024년 7월 이스라엘에 의해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가 살해된 사건이다. 한편, 보복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국가 종교인 시아파 이슬람교를 따르며, 인구의 상당한 소수(10%)는 수니파 이슬람교를 따른다. 이란 헌법은 무슬림,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의 네 가지 종교 단체를 인정하지만,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차별과 법적 제한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민법은 비무슬림 남성이 무슬림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독교 여성도 히잡을 착용해야 하며, 기독교인은 무슬림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수집단, 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바하이교도, 데르비시(Dervish,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 신자, 무신론자 등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다. 기독교로 개종한 수천 명의 이란인 대다수

¹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는 소규모 가정 모임에 모인다. 가장 큰 위협은 이란 보안 기관으로, 이들은 기독교인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나 '시온주의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할 증거를 수집한다. 매년 수천 명의 무슬림 배경을 가진 이란인 기독교인들이 체포, 심리적 고문(독방 감금 포함), 장기 징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나라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정부의 통제는 도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며, 농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하다. 그러나 도시의 익명성 덕분에 기독교인들은 농촌 지역보다 모임과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진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사회적 통제가 더 강해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더욱 제한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동아시아(예: 필리핀, 대한민국)와 서방 출신의 기독교 이주자로 구성되며, 이들 중 다수는 가톨릭, 루터교, 또는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란 내 교회의 수는 극히 적으며, 일부 외국인 교회는 이슬람 배경을 가진 현지 개종자들이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강제로 폐쇄되었다. 또한, 다양한 교파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연례 공동 기도 모임도 이란 보안 당국의 압력으로 인해 과거에 취소된 바 있다.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절대 금지되며, 이들을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같은 역사적인 민족 기독교 소수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설교할 수 있지만,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없으며,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비록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지만, 역사적인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등 시민으로 취급되며 법적, 사회적 차별을 겪는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란에서 가장 큰 기독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가족(친척)과 사회로부터 일부 탄압을 겪고 있다. 세례는 이슬람을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선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며, 부모가 종교적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과거에는 기독교 개종자 그룹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도자가 아닌 일반 개종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종자들을 지원하는 다른 교파의 기독교인들도 탄압을 받고 있다. 한편, 수년간 많은 기독교 개종자들이 이란을 탈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란 기독교 개종자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란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와 개종자 공동체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렵지만, 복음주의, 침례교, 오순절교 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종종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유대인 또는 조로아스터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자녀와 후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또한 정부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전도 활동이나 가정 교회 활동에 참여할 경우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의 억압

이란의 모든 법률은 샤리아(Sharia) 법과 일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임명한 헌법 수호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시아파 학자 및 성직자로 구성되며, 모든 입법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 등 최고 공직 후보자를 심사한다. 이란에서 페르시아 민족은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간주되므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여겨진다. 따라서, 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기독교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일부 지역의 무슬림 성직자들은 종교적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란 사회 전반은 정부 지도부만큼 극단적이지 않다. 이는 온건한 수피 이슬람(Sufi Islam)의 영향력과, 이란인들이 이슬람 이전의 페르시아 문화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는다.

독재적 편집증

정권은 1979년 혁명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서 정당성을 얻는다. 기독교는 위험한 서방의 영향으로 간주되며 이란의 이슬람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또한, 정권은 모든 반대 세력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정권의 권력 기반 유지가 최우선임을 보여준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수감된 기독교인,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

인은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제안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석금은 2,000달러에서 150,000달러까지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은 주택이나 사업체의 소유권 증서를 정부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들은 가족의 재산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란 정권은 그들에게 국외 이주를 강요하고 보석금을 물수당하도록 압박한다.

씨족 탄압

이란은 명예와 수치 문화를 가진 사회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문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란은 다민족 국가로서 일부 민족 집단은 강한 공동체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 개종은 종종 공동체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가족과 집단에 수치를 안겨준다고 여겨진다. 이 때문에, 개종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기독교 교파 보호 주의

이란 당국은 미디어와 국제 무대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교회 대표들의 존재를 강조하여 국가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고 한다. 이러한 교회 대표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만,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만이 매우 제한된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제한을 따르지 않고 더 큰 정도의 종교적 자유를 행사하려는 다른 기독교 교파(주로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를 정당화하지 않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가 이란의 히잡 규정에 따라 도덕 경찰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은 2022년에 이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신앙 때문에 구금된 여성 기독교인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은 무슬림과 결혼하도록 강요 받을 수 있다. 이미 결혼한 경우, 자녀는 무슬림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빼앗길 수 있다. 결혼 생활내에서 기독교 여성들은 성적 학대와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적인 종교 박해 가해자들은 면책을 받는다. 여성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도 어렵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

- 사회적 공동체 및 네트워크 접근 금지
- 자녀 양육권 박탈
- 강제적인 종교 복장 착용 의무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정부에 의한 투옥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여행 금지 및 이동 제한
- 폭력 -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남성

남성들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체포, 기소, 장기 수감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들은 보통 가족의 주요 부양자이다. 기독교로 개종할 때, 남성들은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사업 등록이나 허가를 신청할 때, 담당자가 그들의 신앙을 발견하면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들의 가족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남성들은 또한 감시, 위협, 괴롭힘에 직면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국외 탈출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

- 사업/직업/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도시 또는 국외 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정서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9	86
2024	9	86
2023	8	86
2022	9	85
2021	8	86

WWL 2025 보고 기간 동안 점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압박은 극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폭력 관련 점수도 여전히 매우 높다. 이란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란 내 기독교인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 공동체는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2등 시민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란의 정치 기관은 강경파가 지배하고 있으며, 국가 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당국은 일상 생활과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9월 16일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 사망 이후 시작된 "여성, 삶, 자유(Woman, Life, Freedom)" 시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또한, 기독교 개종자들은 종종 "시온주의 이단(Zionist cult)"의 일원, 즉 이스라엘과 연계된 집단으로 비난받는다. 이러한 주장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종자들에 대한 압박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2월: 성탄절기간에 적어도 46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었다.
- 2024년 6월: 형법 제499조 및 제500조의 개정안은 2021년 2월 법으로 공식 승인되었으며, 이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러 명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다. 6월에 8명의 기독교인이 총 4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은 형법 제500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6월: 아르메니아계 기독교인 하코프 고추만(Hakop Gochumyan)은 이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페르시아어로 된 가정 교회를 방문하고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폐쇄	구금 당한 기독교인 수	정부에 의해 투옥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강제로 자국을 떠나야만 하는 기독교인
2025	17	113	43	1000*
2024	22	122	16	1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으로 인한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동향의 폭력 섹션을 참조해야 한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 특히 개종자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예: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인터넷이 감시되고 있어 이것이 체포 전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메시지(특히 페르시아어로 된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은 전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온라인 기독교 자료를 열람하고 외국인 기독교인과 연락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페르시아어 기독교 자료(특히 많은 양의)를 소지하는 것은 무슬림 배경의 이란인들에게 배포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슬람 배경의 개종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은 감시되고 자주 급습을 당한다.

가족 영역

기독교인은 무슬림 아동을 입양할 수 없지만,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인은 자체 고아원을 운영하며 입양이 가능하다. 개종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며, 1979년 혁명 이후 더욱 이슬람화된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의 자녀조차도 초등학교에서 이슬람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발은 부모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관련된 아동들에게 위협이 가해졌다. 대학에서도 이슬람 역사, 쿠란 교육 및 아랍어 과목이 필수이며, 대학 지원서에는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 무슬림 태생자가 기독교라고 기재하면 입학이 거부된다.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장기간 수감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족 전체에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준다. 이란 민법 제881조에 따르면, 비무슬림은 무슬림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심지어 비무슬림 상속인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무슬림일 경우, 그 사람이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인들은 감시 대상이며, 특히 가정교회를 운영하거나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더욱 그

렇다. 의심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소환되어 협박을 목적으로 한 심문을 받는다. 서방 국가에 있는 정보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이란 정보기관에 보고한다. 이란 내 모든 여성은 머리를 가리고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국가가 이란 경제의 80% 이상을 통제하며, 사업을 운영하려면 연줄과 인맥이 필수적이다.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과 같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는 사업을 할 때 차별을 경험하며, 다른 기독교인들은 거의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국가 영역

정부의 고위직은 시아파 무슬림에게만 허용되며, 기독교인은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단,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을 위한 세 개의 의석만 의회에 할당되어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국가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국가 관리들과 이슬람 성직자들은 기독교인을 비판하며, 특히 이를 시온주의

(Zionism) 및 가정교회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의 심문 과정에서 성희롱이 흔히 발생하며, 이는 이란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이 개종자를 해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교회 영역

대부분의 교회 예배는 경찰에 의해 감시되며, 참석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인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교장들은 대개 무슬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정 교회를 폐쇄하고 지도자와 구성원들을 체포하는 노력을 강화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아있던 네 개의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무기한 폐쇄되었으며 재개장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이란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이란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은 임의대로 체포되며, 국가 안보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공정한 재판 없이 형을 선고받는다. (ICCPR 제9조)
- 평화적인 기독교 종교 활동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시당하며, 정기적으로 정부에 의해 방해받는다. (ICCPR 제18조 및 제21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박해받고 있다. (ICCPR 제18조 및 ICCPR 제 21조)
- 모든 교파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감시 대상이며, 이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 아동들은 강제로 이슬람 종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인은 무슬림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으며, 고등교육 및 공공 고용 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다. (ICCPR 제26조)

이란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바하이교도(Bahai), 수니파(Sunni), 수피(Dervish) 무슬림 및 야르사니(Yarsanis)와 같은 기타 종교적 소수 집단도 이란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이들 집단의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배교(Apostasy)' 혐의 대신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되어 처형당했다. 쿠르드족(Kurds), 발루치족(Baloch), 이란 아랍족(Iranian Arabs)과 같은 소수 민족 또한 정부의 의심과 차별을 받고 있다.

오픈도어의 이란 사역

Open Doors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사역을 일으키고 있다.

